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뉘었어요



배울 말씀 열왕기상 11:26-12:33

읽을 말씀 열왕기상 11:31-34

외울 말씀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왕상 8:58).

메인 아이디어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난 죄는 심판하시지만, 하나님 나라의 약속은 계속해서 이루어가신다.

포인트 끝까지 하나님만 따르라!

- 목표**
- ① 하나님을 따랐던 솔로몬의 변심으로 인해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뉘는 벌을 받게 되었음을 안다.
 - ② 사람은 비록 변심할지라도 신실하신 하나님은 계속해서 약속을 이루어가심을 안다.
 - ③ 끝까지 하나님만 따르기로 다짐한다.

준비물 성경, 생각마당 시각자료 1과, 말씀마당 그림책(가림막), 어린이용 교재, 필기도구, 쓰레기통이나 바구니, D 질문 카드 1과, D 가위





설 명

솔로몬의 통치 기간 중 가장 화려했던 시기에,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시고 완공하게 하셨다. 칠 년간 이루어진 성전 공사 이후에도, 솔로몬은 십삼 년 동안 예루살렘 성 건축을 계속한다. 연이은 두 공사는 이웃 나라인 두로의 도움을 받아야 할 정도로 규모가 컸다. 그로 인해 이십 년간 노역을 해온 이스라엘 백성의 피곤은 극에 달했다. 이는 훗날 이스라엘이 분열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솔로몬은 나라의 안녕과 왕권 강화를 위해 하나님이 금하신 다양한 정책을 펴기 시작했다. 이방 왕족, 귀족 여인들과 정략적 혼인을 했으며, 말과 병거의 수를 늘리고 군사 조직을 강화하였다(신 17:14-20, 삼상 8장). 이는 모두 이방 민족의 통치 방식을 표방한 것이었다. 솔로몬의 정치는 필연적으로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의 우상을 섬기는 행위로 이어졌으며, 이스라엘 전역에 우상이 퍼지게 되는 결과를 낳았다.

솔로몬의 이러한 정책들은 아버지 다윗의 유언과 하나님과의 약속에 배치되는 것이었다. 하나님은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할 당시, 여호와 의 율법을 준행하고 오직 여호와만을 섬길 때 흥왕하는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셨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솔로몬의 마음이 나뉘었으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뉘는 벌을 내리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긴 다윗을 생각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위에 있을 때 이 일을 행하신다.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른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솔로몬의 공사 감독 출신으로 백성들의 지지를 받은 여로보암은 열 지파와 함께 예루살렘 북쪽을 차지하여 북왕국 이스라엘을 세웠고, 유다와 베냐민 두 지파만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왕으로 지지하여 남왕국 유다를 이어갔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두 나라로 나뉘고 말았다.

하나님은 지금도 전심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을 찾으시고 보호하신다.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눅 18:8)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나뉘지 않고 변함없이 하나님만 따르는 자를 찾기 어려운 오늘날의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1과에서는 어린이들에게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섬겨야 함을 알게 하자.

핵심 단어

우상 | 우상은 하나님 이외에 숭배의 대상이 되는 형상을 말한다. 하나님은 우상을 섬기는 것뿐만 아니라 우상을 만드는 것도 금하셨다. 우상은 사람의 욕심으로 생겨나며(롬 1:23-25),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섬길 수 없기 때문이다(마 6:24).



READY!

생각마당 시각자료 1과를 준비한다.

tip 생각마당 시각자료 1과 뒷면에 생각마당 시각자료 2과가 있으므로, 버리지 말고 보관해둔다.

GO!

작심삼일(作心三日)의 뜻을 생각해보고, 절대로 변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 생각해본다.



(생각마당 시각자료를 보여주며) 여러분, 여기 사자성어가 있어요. 바로 ‘작심삼일’이라는 말이에요. 이 말을 들어본 적 있나요? 이 말의 뜻은 무엇일까요? 한자 밑에 적힌 각 글자의 소리와 뜻을 보고, 무슨 뜻인지 생각하여 이야기해보세요. (대답을 듣는다.)

이 말은 ‘지을 작(作)’, ‘마음 심(心)’, ‘적 삼(三)’, ‘날 일(日)’의 한자로 만들어진 사자성어예요. ‘마음먹은 지 삼 일을 넘기지 못한다’는 뜻으로, ‘결심한 것을 단단히 지키지 못하는 것’을 말해요.

이 사자성어처럼, 여러분도 처음 결심을 단단히 지키지 못했던 일이 있나요? 자유롭게 이야기해보세요. (이야기를 나눈다.)

이렇게 우리는 큰 결심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단단히 지키지 못할 때가 있어요. 상황이나 환경이 바뀌어 결심한 것을 지키기 어렵게 되거나, 시간이 흘러 결심한 것을 잊어버리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우리의 모든 것이 변한다 해도 절대로 변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일까요? 말씀을 통해 알아보아요.

READY!

말씀마당 그림책 1과와 가림막을 준비한다.

GO!

(가림막으로 1-1을 가리고) 다윗이 죽은 후,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어요. 처음 왕이 되었을 때,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이스라엘을 잘 다스렸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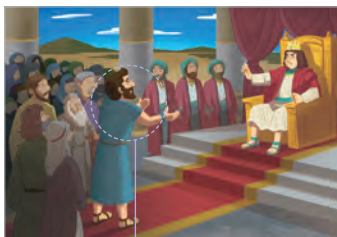


*1-1 그림을 가림막으로 가리고 시작해주세요.



(1-1을 보여주며) 그런데 시간이 흐르자 솔로몬은 처음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던 마음이 변하고 말았어요. 솔로몬에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것이 생겼기 때문이에요. 솔로몬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어요.

하나님은 솔로몬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우상을 섬긴 죄로 인해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큰 벌을 내리기로 하셨어요. 하나님이 내리신 벌은 이스라엘을 둘로 나누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 중 열 지파를 큰 용사 여로보암이 다스리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왕상 11:30-32). 이 일은 솔로몬에게 아주 큰 벌이었어요. 자신의 죄 때문에 나라가 둘로 나뉘는 뿐 아니라, 솔로몬의 아들이 다스릴 나라가 솔로몬이 다스리는 나라보다 작아지기 때문이에요. 솔로몬은 이 사실을 알고 여로보암을 죽이려 했어요. 그래서 여로보암은 솔로몬을 피해 멀리 도망갔어요.



여로보암

(1-2를 보여주며) 솔로몬 왕이 죽은 후,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어요. (여로보암을 가리키며)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백성은 르호보암 왕을 찾아갔어요.

“왕이시여! 솔로몬 왕이 살아 계실 때, 우리가 성벽을 고치느라 힘든 일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 왕께서는 우리의 일을 줄여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왕을 잘 모시겠습니다.” (왕상 12:4) 르호보암은 백성들의 요구에 이렇게 대답했어요.

“우리 아버지는 너희에게 힘든 일을 많이 시켰다. 하지만 나는 너희에게 그보다 힘든 일을 더 많이 시킬 것이다!”

르호보암의 말을 듣고 크게 실망한 여로보암과 백성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대답을 들은 후) 그들은 백성들을 돌보지 않는 왕은 더 이상 필요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을 돌보아줄 새로운 왕을 세우기로 했지요.



(1-3을 보여주며) 누가 이스라엘 백성의 새로운 왕이 되었을까요? (대답을 들은 후) 바로 ‘여로보암’이었어요. 백성들은 여로보암이 왕이 된 것을 기뻐했어요. 하지만 르호보암 왕의 가족이었던 유다 지파는 여로보암이 새로운 왕이 되는 것을 반대했어요. 그래서 르호보암 왕이 다스리는 남쪽에 살며 나라 이름을 ‘유다’라고 불렀어요.*

여로보암은 자신을 따르는 열 지파 사람들과 함께 북쪽으로 가서 나라를 세웠어요. 그리고 나라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불렀어요.

하지만 왕이 된 여로보암은 금송아지 두 마리를 만들어 백성들이 섬기게 하는 아주 큰 죄를 지었어요. 우상을 만든 여로보암은 더 이상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어요.

이렇게 이스라엘은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로 나뉘었어요. 마음이 변해 하나님을 끝까지 섬기지 못한 솔로몬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이 둘로 나뉘게 된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아들이 계속해서 나라를 이어가게 하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비록 남쪽의 작은 땅이었지만 다윗의 후손인 르호보암을 세워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해서 이루어가셨어요.

* 유다 지파 외에는 르호보암을 따르는 백성이 없었지만, 예루살렘 주변에 거주했던 베냐민 지파도 남왕국 유다에 남게 된다(왕상 12:20-21).



GO!

오늘 배운 말씀을 스스로 기억할 수 있도록 질문을 한다.

1. 솔로몬 왕의 처음 모습과 나중 모습은 어떻게 달랐나요?

(처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이스라엘을 잘 다스렸어요. 하지만 나중에는 솔로몬의 마음이 변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경고도 무시했어요.)

㉠ 하나님을 향한 솔로몬의 마음이 왜 변했을까요?

(솔로몬에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것이 생겼기 때문이에요.)

㉡ 왜 이스라엘이 둘로 나뉘는 것이 솔로몬에게 큰 벌이 되었나요?

(솔로몬의 죄 때문에 나라가 둘로 나뉘는 뿐 아니라, 솔로몬의 아들이 다스릴 나라가 솔로몬이 다스리는 나라보다 작아지기 때문이에요.)

2. 힘든 일을 줄여달라는 이스라엘 백성의 요구에 르호보암은 어떻게 반응했나요?

(아버지 솔로몬보다 힘든 일을 더 많이 시킬 것이라고 했어요. / 앞으로 더 힘들게 할 것이라고 말했어요.)

㉢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백성이 새로운 왕을 세우려고 했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르호보암 왕이 백성들을 돌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3. 이스라엘이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나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솔로몬의 마음이 변해 하나님을 끝까지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에요.)

솔로몬이 마음이 변해 끝까지 하나님을 따르지 않은 죄 때문에 이스라엘은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로 나뉘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변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따르기 원하세요. 이것을 기억하며, 우리 모두 끝까지 하나님만 따르기로 다짐해요.

저를 따라 외쳐보세요.

“끝까지 하나님만 따르라!”

㉠

READY!

- ① 예수빌리지 홈페이지(자료실)에서 '질문 카드 1과'를 다운로드하여 양면으로 인쇄한 후 자른다.
- ② 질문 카드를 바닥에 얹어놓는다.

GO!

- ① 아침에 일찍 일어난 어린이부터 두세 명씩 조를 만들고, 조별로 앉는다.
- ② 조별로 한 명씩 나와 질문 카드를 가져간다.
- ③ 카드의 질문을 보고 서로 의논하여 답을 찾은 후, 질문과 함께 답을 이야기한다.



READY!

- ① 필기도구를 준비한다.
- ② 쓰레기통이나 바구니를 준비한다.

GO!

1. 하나님을 끝까지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준다.

여러분, 하나님을 끝까지 따르는 것이란 무엇일까요? (대답을 듣는다.)

‘하나님을 끝까지 따르는 것’이란 평생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며 살아가는 거
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끝까지 따르기로 다짐하나요? (어린이용 교재를 보여주며) 끝까지 따르기로 다짐하는 어린이는, 어린이용 교재의
‘끝까지 하나님만 따라요!’ 활동지에서 비어 있는 얼굴을 자신의 모습으로 꾸며보세요. (시간을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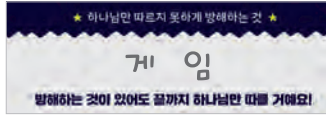
2. 하나님만 따르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그런데 끝까지 하나님만 따르고 싶지만 우리 마음이 변할 때가 있어요.

무엇이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마음을 변하게 하나요? 여러분이 하나님만 따르지 못하게 방
해하는 것을 자유롭게 이야기해보세요. (대답하기 어려워할 경우, 교사가 먼저 자신의 이야기
를 들려준다.)

- 예 저는 욕심이 생겨 하나님을 따르지 못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친구들과 나누어 가지고 욕심 부리지 말라”(딤후 4:18 하 참고)고 말씀하셨는데, 가끔 욕심이 생겨서 나만 더 많이 가지고 싶을 때가 있어요. 이럴 때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게 돼요.

우리에게 욕심이 생기거나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생길 때, 우리의 마음이 변하고 하나
님만 따르지 못하게 돼요.



여러분이 말한 것 외에도 하나님만 따르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꾸민 얼굴 그림 아래 회색 종이에 적어보세요. (시간을 준다.)

🎮 게임, 친구, 욕심, TV 등

이제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을 적은 회색 종이를 떼어, 구겨보세요. 아주 작아질 때까지 구겨보세요. (시간을 준다.)

그리고 여기에 적은 내용들이 다시는 하나님을 따르는 것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이것들을 멀리할 거예요!’라고 다짐하는 어린이는 (쓰레기통이나 바구니를 보여주며) 구긴 종이를 여기에 버리세요. (시간을 준다.)

D

마음이 변해 하나님만 따르지 못하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을 향한 우리 마음이 변하는 일들이 생길까요?
조별로 이야기를 나누어보세요. (이야기를 나눈 후, 조별 대표의 발표를 듣는다.)

그 이유는 우리 안에 ‘죄’가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생겨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것,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욕심, 이 모든 것이 바로 ‘죄’예요.

솔로몬도 그랬어요. 하나님을 잘 따랐지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것이 생기자 자신이 원하는 대로 행동했어요. 그래서 마음이 변하여 하나님을 끝까지 따르지 못했어요.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변할 때마다, 이것이 죄 때문임을 기억하고 죄에서 돌이켜야 해요.

때로는 이렇게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어려울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럴 때에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변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도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도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끝까지 하나님만 따라야 해요.



3. 끝까지 하나님만 따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활동지를 조작하며 끝까지 하나님만 따르기로 다짐한다.

이제 어린이용 교재에서 ‘끝까지 하나님만 따라요!’ 활동지를 떼어보세요. (시간을 준다.)

끝까지 하나님만 따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답을 듣는다.)

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해요



먼저 하나님만 따르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해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기 위해, 모든 순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가장 소중히 여겨야 해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기로 다짐하나요? (대답을 듣는다.) 이렇게 다짐하는 어린이들은 에 자신의 이름을 적어주세요. (시간을 준다.)

②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요



이름을 다 적었으면, 하트를 선 따라 뜯어낸 후 오른쪽으로 돌려보세요.

끝까지 하나님만 따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것 외에 또 무엇을 해야 할까요? (대답을 듣는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경을 잘 알아야 해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해요.

끝까지 하나님만 따르기 위해 매일 성경을 한 장씩 읽기로 다짐하는 친구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래요!’에 사인을 해주세요. (시간을 준다.)

(하트를 왼쪽으로 돌려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를 다시 보여주며) 이렇게 우리 마음을 하나님 사랑으로 가득 채우고, (하트를 오른쪽으로 돌려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래요!’를 보여주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만 따를 수 있어요.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정말 기뻐하세요.

이제 활동지를 집에 가져가서 잘 보이는 곳에 놓아두세요. 그리고 이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끝까지 하나님만 따르기로 다짐하는 우리가 되어요.
저를 따라 외치고 마쳐요.
“끝까지 하나님만 따라요!”

기도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변해 하나님을 따르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돌
이켜 하나님께로 향하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만 따르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예
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